



## 보도자료

발송일 : 2016. 11. 15(화)

문의 : 김지연 연구원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②

### ‘재벌개혁’ 없는

###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1.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 남인순)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 최병모)는 오늘(15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두 번째 연속토론회, <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 와 ‘경제성장’ 이 가능한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 수단에 관해 종합적 검토와 대안 제시,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 발표 :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사회 : 홍중학 前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토론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 정우용 전무(상장사협의회)
-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 주관 : 이학영 의원실
- ◎ 주최 : 더좋은미래, (재)더미래연구소

2. 과거 재벌과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재벌이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크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향후 성장잠재력마저 고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마저 고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제대로 된 대책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토론회는 홍종학 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은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혁신의 측면에서도 재벌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체제는 사업구조상 수직계열화와 다각화(문어발 구조), 협력업체의 하청기업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편법적 재산 및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계속된 불법 행위에 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고, 산업화 단계의 조세감면 및 값싼 산업용 전기료 특혜가 여전히 유지되는 등 재벌의 반칙과 특권, 특혜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재벌해체론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며 대안이 없고, 재벌불가피론은 경제성장, 고용, 국민경제적 균형성장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긍정성을 유지·확대하고 부정성은 제거해 새로운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 자회사 지분요건 강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사업연관성 요건 부활, 복수의 자회사에 의한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와 같은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는 등의 소유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2) 또한 김 소장은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반시장 경제 범죄자의 경우 영구히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집단 지배구조법」 제정을 특히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지배구조법을 제정한 전례로 볼 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에는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 자사주 취득 제한 등 재벌총수의 황제적 경영을 견제할 지배구조 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3)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혹은 의무고발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강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4)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재벌의 특혜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 삼성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각종 「재벌 특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먼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들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집단이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유발하며, 검증되지 않은 2세에게 경영권 승계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2013년 12월 ‘기업소유지배구조, 금산분리, 정부 권한’,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력집중법」을 제정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1) 기업소유지배구조는 ‘지주회사-자회사’ 2층 구조만을 허용함으로써 6년 안에 기존 지주회사체제를 2층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2)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 회사의 동시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은행만이 아니라 전 금융권에 걸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불허하는 등 금산분리를 강화했고, (3) 주요 공공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에 참여 허용 여부를 관련 위원회가 해당 정부기관에 권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재벌개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고려한 중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5.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재벌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한 대표적 재벌개혁론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와 기업, 특히 상장사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전달할 정우용 전무(상장사협의회)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6. 이번 연속토론회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등 국정 주요 분야의 핵심 정책 의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해법을 제안하고자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으로 기획됐다. 지난 11월 8일 첫 번째 토론회인 < ‘인구소멸 1호 국가’ 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가 개최된 바 있다(토론회 일정은 <별첨> 참조).

〈별첨〉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일정

순번	일시 및 장소	주제	패널	
1	11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사회	남인순 의원
			발제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박광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김우창 교수(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박선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이삼식 단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11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사회	홍종학 前 의원
			발제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토론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정우용 전무(상장사협의회)
3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사회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발제	김창수 원장(코리아연구원)
			토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근식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정철 교수(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4	11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가칭) 에너지 정책의 전환 : 전력정책 일반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토론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안병욱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재완 팀장(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

\*이후에도 산업, 재정,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토론자 구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